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시스템 구축

전주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 센터 유치키로
시 거주 발달장애인 증가율 높으나 전문 의료기관 없어

전주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과 서

울 한양대학교병원 2개소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각 권역별로 6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치에 성공하면 전주와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자해·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역 내에 발달장애인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가 이처럼 이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2,940명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고, 증가율도 20%로 전국 평균

(18.6%)보다 높지만 치료를 수행할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전주시 특성에 맞는 복지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민선5시 시 복지환경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전주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유치 성공을 위해 관련 병원과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를 열고 있다.

이론·실무 겸비 예산안 심사 능력 향상 도모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의원)가 17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특강을 갖고 건전 재정 도모를 위한 예산심의 4대원칙과 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서난이 위원장은 "2019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시 행정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간담회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는 17일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참여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 동안 성과를 되돌아보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 생명의 전화 등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13개 기관 관계자와 참여자들이 사례발표 등을 통해 상생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전주 생명의 전화에서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숙 씨(66, 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문성도 살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대화로 이끌었을 때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돼 기쁘다"면서 "배이비 볼 세대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고창모양성제 개막

17일 '제45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한 가운데 14개 읍·면 농악단과 고을기기수단, 취타대, 호위군관,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해 거리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에너지센터 설립

전주시,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자립도시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민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에너지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와 전주시민들이 함께 수립한

'에너지디자인 3040'은 전주를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과 전력 자립률을 각각 30%와 4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센터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관리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에너지교

육·홍보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전환 박람회 △초록도시 공모전 △에너지 독립운동 △에너지전환 생활기술 워크숍 △에너지전환 시민포럼 △에너지 스마트효율기기 보급사업 △전기자전거 시범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지역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시는 238가구(714kW)와 공동주택 890가구(242kW), 공공건물 3개소(240kW)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펼쳐왔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조명 1000여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취약계층 가구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쿨루프(Cool Roof) 사업도 전개했다.

시는 내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28억원을 확보, 산업시설과 주택, 공공시설 등 총 212개소 대상으로 태양광 183개소(884kW)와 태양열 24개소(383㎡), 지열 5개소(88kW)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만들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12일부터 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별대책의 하나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16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및 자격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티,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하였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지점에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및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날 위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1건, 불법등화장치 설치 6건,

등화불량 4건, 후부반사판 훼손 8건, 안전벨트 미착용 4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2건, 등록번호판 봉인훼손 4건, 적재불량 4건 등 총 33건에 대해서 적발하였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 절대금지,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교통안전에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쳤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만들고 전라북도를 찾은 손님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체전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교통사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학위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자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